

왕우렁이 농법 혼선... 농민들만 골탕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부 발표로 농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왕우렁이가 외래종이고 월동을 하는 등 번식력이 왕성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방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왕우렁이가

환경부 “생태계 파괴...교란종 지정 추진” 친환경 재배 면적 90%...올 농사 망칠 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를 막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왕우렁이 농법은 간편한데다 비용도 저렴해 나주시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경우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천㎡의 논에 왕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9만7천500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쌀겨농법 12만원 ▲오리농법 30만원 ▲종이멀칭농법 47만원이 소요된다.

이모(68·나주시 다시면)씨는 “적은 비용으로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지난해부터 왕우렁이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니 판단이 안산다”며 “지금도 왕우렁이 방사시기여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친환경농업단체 등은 환경부에 왕우렁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제의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왕우렁이 농법에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환경부가 제동을 걸어 난감한 입장”이라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 쌀겨를 사용하는 등 다른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바지락 지켜라” 강진군 모래 살포 강진군이 어패류 등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최근 900여t의 모래를 바지락 양식장인 대구면 저두리 일대 5만㎡의 바다에 뿌렸다. 강진군은 상류에서 모래 채취가 계속되면서 바지락 폐사가 늘고 있는 강진만의 갯벌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양식장 60만여㎡에 모래를 살포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습관을 바꿔요! 저탄소 경제로’ 영암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제 13회 환경의 날 및 클린 전남 기념행사’가 푸른 영암21(의장 오무길) 주관으로 지난 5일 영암군 삼호읍 영산초 선착장 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습관을 바꿔요!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경제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창용 푸른전남협의회장, 김갑섭 해양수산환경국장, 신락현 영암군의회위원장, 서중배 영암부군수를 비롯해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와 각급 기관단체 회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후 참석자들은 영산초 일대에서 수질정화 작업을 벌여 쓰레기 4t과 폐그물망 10여t을 수거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후 참석자들은 영산초 일대에서 수질정화 작업을 벌여 쓰레기 4t과 폐그물망 10여t을 수거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담양 노인 치아 손실 전국 평균보다 높아

담양지역 65세이상 노인들의 자연치아는 1인당 평균 8.2개에 불과, 치아 손실을 막는 예방적 구강보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담양군보건소가 대대면 20개 경로당의 65세이상 노인 256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남아있는 자연치아 수가 1인당 평균 8.2개로 전국 평균 자연치아 수 12.2개보다 4개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지역 노인들의 자연치아 수가 적은 것은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 예방적 구강보건 서비스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보건소는 이에따라 불소도포 116명, 틀니제작 200명, 스케일링 43명 등 대대면 경로당 노인들에게 무료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자연치아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구강관리 서비스를 관내 302개 전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염권철 보건소장은 “구강건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연·절주 등 건강증진사업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반발 확산

순천대 발전협 “철회 안되면 총장 퇴진 운동”

순천대학교와 광양시가 지난 5일 광양캠퍼스 조성 위한 양해각서(MOU)를 기속적으로 체결한데 대해 지역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는 광양시·순천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담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순천대가 지역원로와 시민단

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순천대발전협의회를 무시하고 변형적인 공과대학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대흐름에 역행해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에 따른 신규 정원을 승인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특히 순천대발전협의회 이석식 위원은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계획

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순천대 총장에게 있다”며 “협의회는 시민서명운동과 가두선전, 관계기관 항의 방문, 총장 퇴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대측은 지난 2월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문을 체결했으며 지역원로, 시민단체 대표, 동문 등 20인으로 ‘순천대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신지도 처녀-프랑스 군인 염문설’ 명사십리 “전설 속 주인공 조각상 세우자”

완도군 신지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전설속 주인공의 조각상을 세우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지도 출신인 정운태(72·광주광역시)씨는 수년 전 완도군 문화원에서 펴낸 ‘청해지’에 수록된 신지도의 ‘내 고향 전설’을 읽고 전설속 주인공의 조각상 건립을 착안하게 됐다.

청해지에 따르면 1888년 6월께

프랑스 대형 군함 1척이 명사십리 임촌해안에 나타나 군인 3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상륙했다.

군인들은 마침 해안가에서 조개 등을 잡고 있던 한 처녀와 부녀자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낯선 외국인들의 출현에 놀란 주민들은 마을로 피신했다.

그중 장교 한명은 처녀를 계속 따라가며 말을 걸다 배로 되돌아

갔고, 그후 마을에서는 처녀와 외국 군인간의 염문설이 돌았으며 결국 그 처녀는 명사십리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3개월여가 지나 다시 마을을 찾은 프랑스 장교는 처녀의 사연을 듣고 자신도 자결했고, 주민들은 그를 처녀와 함께 묻어주었다. 이때부터 파도가 심한 날이면 모래밭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난다 해서 ‘명사십리(鳴沙場)’으로도 불리고 있다는 것.

정운태씨는 “명사십리 전설의 내용을 담은 처녀와 프랑스 군인의 조각상을 세우면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군보건소 ‘이주 여성’ 통역 요원 배치

해남군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주여성들을 위해 베트남어와 필리핀어(필리핀) 통역 요원을 배치

했다.

보건소에 배치된 통역 요원은 필리핀과 베트남인 각각 1명으로 연말까

지 근무한다.

지난해 시작된 통역 서비스를 통해 ‘모유 수유 교실’과 ‘라마즈 출산교실’, ‘다문화 가족초청 위안잔치’ 때 700여명의 이주여성이 혜택을 받았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함평군 보건소 한방사업 우수기관 보건부장관 표창...주민건강증진 최우수군 선정도

함평군보건소(소장 유경순)가 보건사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각종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해 보건사업 평가에서 한방 공공보건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관표창과 실무자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또 주민건강증진 사업 최우수군에 뽑혀 전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질병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양관리 부문과 모자보건 분야에서도 전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함평군보건소의 이같은 알찬 성과는 ‘에코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 가꾸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방보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함평군보건소는 사상체질 교실, 한방육아 교실, 중풍 교실, 기공체조 교실, 한방 가정방문사업 등 5개 사업을 집중 추진해 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함평경찰서 동삼지구대 주민 일손돕기 앞장

함평경찰서 동삼지구대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동삼지구대는 최근 순찰 근무 도중 도로에 아적돼 있는 농산물을 농가로 운반하는 등 농민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조인규 지구대장은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과 함께 주민들의 일손부족을 돕는 지역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미도

正統日食

확장기업

일식이 뜨거워지면 13년째 후열이 뜨거워져 새로운 문화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도, 새집만

정식/수입독심

- 독심/수입독심 11,000원
- 미도정식 15,000원
- 미도정식 21,000원

수업적 50%기부 (무엇든 후원받을 수 있음)

문의: 234-0001

해피투게더 4050싱글열차

다문화가족(이주여성)을 위한

수업적 50%기부 (무엇든 후원받을 수 있음)

문의: 527-3388

문의: 527-3388

문의: 527-3388